

##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 30년간 비교

한덕웅<sup>†</sup> · 이경성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한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생관이 지난 30년 동안 네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Morris와 Jones (1955)가 제작하고 Dukes와 Dempsey(1966)가 수정한 인생관척도를 전국의 대학생 712명과 50대 성인 92명에게 실시하고 1970년대부터 10여년마다 세 시점에서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1) 먼저 전체 대학생 자료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매우 선호하는 인생관의 순위에서 변화를 보였다. 1970년대에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통제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2002년 조사에서는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4위로 순위와 평균이 모두 낮아졌다. 반면에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높은 선호도를 보인 인생관은 현실에서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행동이었다. (2)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가장 선호도가 낮은 인생관은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이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 순위가 가장 낮았다. (3) 연령에 따른 차이를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들은 대학생 시절과 달리 50대에는 자신을 완성하고 종교에 귀의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며, 여성들은 집합적이고 사회적 생활방식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국내외 가치관 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장래 연구를 위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가치관, Morris 척도, 인생관, 가치관의 변화, 한국인, 조사연구

가치관이나 가치를 다루는 심리학자들은 대체로 개인이 지니는 가치관이 인지, 동기, 태도는 물론이고 행동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가정에서 연구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가치관과 이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서 잘 발달된 심리학 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치관과 관련된 인지, 동기 및 정서 요소들 가운데 단편적으로 몇 단면에 관해서만 이론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가치관이 여러 사회행동에 관한 여러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Ajzen, 1988)나 가치관이 생활 목표의 설정에 기여함으로써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예, Mar-

kus & Wurf, 1987; Srull & Wyer, 1986) 등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가치관의 심리적 기능을 다루는 연구들로서 가치관이 생활 목표의 설정이나 혹은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거쳐서 행동에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가치관이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 신념이나 태도를 조직화해 주는 기능, 자기 행동과 감정을 합리화시키는 기능들을 강조하기도 한다(차재호, 1987, 138쪽).

비록 가치관과 다른 심리 요소들의 관계를 다룬 심리

<sup>†</sup> 교신저자 : 한덕웅(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dwahn@dragon.skku.ac.kr)

학 연구들은 다양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치관이나 가치를 조사하여 보고한 연구들은 많다. 특히 개인보다 집합 단위를 다루는 사회심리학이나 비교문화심리학의 접근에서도 집합이나 국민성의 특징을 기술할 때 가치나 가치관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예, Kluckhohn, 1959; Rokeach, 1973; Triandis, 1990; Schwartz & Bilsky, 1987, 1990; Schwartz, 1994). 문화심리학이나 비교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 가치관을 다루는 연구들은 문화나 생태학적 환경이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다양한 가정을 제안한다. 먼저 정치나 경제를 포함하는 생태학적 요인들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관점에서는 가치관이 환경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이와 달리 문화에 따라서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문화의 환경 생태학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 사회문화의 맥락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가치관들을 근거로 생활함으로써 사회 문화의 맥락을 변화시키는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상호 영향의 과정을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가치관은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독특한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대응반응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화의 환경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인간의 능동적 심리 활동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의 사회 문화 환경에서 과거 30 여년 동안 대학생들의 가치관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30 여년이 지난 현재 성인들은 이전과 비교해서 가치관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제를 다루면서 우선 고려하여야 할 점은 어떠한 가치나 가치관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가치나 가치관의 변화를 다룬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들은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다양한 가치들을 가려내고, 이 가치들에 대한 상대적 선호 순위나 혹은 각 가치에 대한 선호 수준을 측정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여러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가치들의 내용이나 측정에 사용한 기법이 매우 다양하다. 그 뿐만 아니라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시점마다 조사한 조사 대상 역시 일정하지 않

고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서 수행된 가치나 가치관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들로부터 시점간 상호 비교를 통해서 전반적 가치관 변화의 추세를 신뢰성 있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처럼 상호비교하기 어려운 연구 방법의 난점 때문에 사회의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가치나 가치관의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논의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념, 태도 혹은 가치를 다루어서 발표한 연구들 가운데 조사에 사용된 문항과 반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동일하고, 조사의 대상 역시 유사하고, 다만 조사의 시점만을 달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차재호(1987)의 국내 개관논문에서 필자와 공동연구자들(한덕웅, 1975, 손정락, 1982)의 연구가 이 요건을 충족시킨 유일한 가치관 연구로 평가되었다. 그 후 차재호와 공동연구자들(차재호·정지원, 1993; 나은영·차재호, 1999)이 발표한 연구도 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 내용을 추론하는데 이 요건들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요건들을 계속해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사를 수행하려고 한다.

한편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문화에서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선정한 가치나 가치관들이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성있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내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연구자들이 측정에 사용한 가치나 가치관들이 여러 사회와 문화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보편성이 있는 내용인지 물을 수 있다. 실제로 가치관 연구가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50년대부터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한 학자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들에는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성 있는 공통 요소와 아울러 각 문화마다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우세했다(예, Kluckhohn, 1959; Morris & Jones, 1955; Osgood, Wase, & Morris, 1961; Rokeach, 1973; Schwartz & Bilsky, 1987, 1990; Schwartz, 1994).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범문화의 가치관 구조를 가정한 척도들이 과연 여러 사회와 문화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가치들을 잘 포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Rokeach(1973)의 목적가치와 수단가치들을

포함시켜서 범문화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Schwartz와 Bilsky(1987, 1990; Schwartz, 1994)가 제작한 가치관 척도 역시 동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 척도에 포함된 가치들이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서 범주별로 묶을 때 범문화적 보편성을 지니는 지도 의심스럽다(조남국, 1994). 이 문화 보편성의 문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Morris와 Jones(1955; Dukes & Dempsey, 1966)의 인생관에 초점을 맞춘 가치관 척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척도는 한국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불교 요소를 포괄하고 있으나 힌두교나 이슬람과 같은 인도나 중동의 종교, 그리고 유교나 도가 등의 동양사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Morris와 Jones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있는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계에 현존하는 중요한 종교, 윤리 및 철학 사상들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가치관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이 가치관들에 의해서 인간의 다양한 성격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작한 이 가치관 척도는 다양한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욕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긴장의 해소와 충족을 추구하는 디오니소스 유형, 세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는 프로메테우스 유형, 자기의 조절을 통하여 만족을 추구하는 아폴로 유형을 핵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욕망을 억제하여 자기를 조절하려는 불교 유형, 기독교 유형, 및 마호메드 유형 등이 복합되어서 구성될 수 있는 13가지 인생관 척도를 만들었다.

이 척도는 Morris(1956)가 구분한 가치들 가운데 한 가치를 선택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미리 예견하여 이를 근거로 언어적으로 표현한 선호행동을 측정한다. Morris는 이 가치관 척도를 제작할 때 Kluckhohn(1959)의 가치관 체계에 이론적 근거를 두었다. Kluckhohn은 가치관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가치 문제의 성질도 다르고 아울러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에 근거를 두고 가치관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의 성질을 ① 인간의 선천적 본성, ② 자연과의 관계, ③ 시간 차원, ④ 가치관적 인격 형태, 그리고 ⑤ 타인과의 관계로 구분하였다. Morris는 이 다섯 범주들

가운데 ⑤ 가치관에 근거한 인격의 형태를 측정하는 인생관 척도를 제작하였다. 참고삼아 말하면 Kluckhohn은 가치관에 근거한 인격 유형들을 삶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 존재, 생성 속의 존재, 그리고 행동의 세 범주들로 구분하였다.

Morris와 Jones(1955)에 의해서 처음 제작된 인생관 척도는 원래 각 가치관을 평균 100개 이상의 단어들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그 후 Winthrop(1959)이나 다른 학자들이 이 척도에 대해서 두 측면에서 비판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언어로서 가치관을 표현했을 때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재화된 가치관의 구조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었다. 이 비판은 언어로 표현된 가치관의 측정에 의해서 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을 높여야 하는 타당도 문제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비판은 100 여개 단어들로 구성된 각 가치관에 대해서 선호 반응을 요구할 때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관되고 통일된 의미를 구성하고 반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Dukes와 Dempsey(1966)는 후자의 비판을 수용하여 ① 의미가 서로 조화되지 않아서 반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복합 요소들을 제거하여 동질성을 잃지 않고, ② 각 가치관의 전체 내용을 파괴하지 않고 간략하게 정리하려는 단순성의 기준에 따라서 척도를 수정하였다.

13가지 인생관들에서 각각 추구하는 생활 목표들을 Depmsey와 Dukes가 정리한 내용에 따라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인생관 1 : 인류 유산의 이해하고 중용의 생활 태도
- 인생관 2 : 자기의 내면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 완성
- 인생관 3 : 인정과 우애있는 대인관계 형성하고 유지
- 인생관 4 :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
- 인생관 5 : 사회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단적 활동과 우의
- 인생관 6 : 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행동
- 인생관 7 : 여러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융통성과 다양성
- 인생관 8 : 단순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 인생관 9 : 욕망을 억제하고 수용적 태도로 지혜를 획득

인생관 10 :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통제

인생관 11 : 명상을 통한 내적 생활

인생관 12 : 정력적이고 모험적 활동을 통한 만족

인생관 13 :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

Morris와 Jones는 이 13개 가치관 유형들에 의해서 모든 문화권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공통적 인생관 유형들과 문화마다 특수한 유형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이 가치관들에는 타인에 대한 공생적 관심, 친화와 우애, 자기 통제, 이상 추구 및 중용의 강조 등 중요한 유교 가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교 사상에서 사회에서 개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동조하기 위한 자기통제의 중요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히 극동문화에서 큰 영향을 미친 유교의 인생관을 잘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생관 척도들에 여러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문화 보편성이 비교적 높은 Morris의 인생관 척도가 지니는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화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인생관들을 반영한 Morris와 Jones의 인생관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사회에서 과거 30여년 동안 10년마다 네 시점에서 동일 지역의 표본을 사용하여 동일한 내용과 측정 기법으로 인생관을 조사함으로써 시대와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지니는 인생관은 한편으로 정치, 경제, 및 사회의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지만 단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인생관이 형성되기 보다 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인이 생활양식으로 추구하려는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여기서는 먼저 한국사회에서 지난 30년간 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요인들이 크게 변화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한국 사회의 생태환경이 이처럼 급속하게 변화됨으로써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생활 태도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예, 차재호, 1987, 1989). 본 연구가 처음 이루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도 30년 동안 한국사회

는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경제와 정치의 측면에서 중요한 몇 가지 특징만 살펴보다라도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변화의 폭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1950년 이후 한국전쟁으로 심화된 경제의 낙후와 아울러 정치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군부 구태타에 의해서 수립된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1970년대부터 경제의 측면에서는 다소의 성과를 보였다. 198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의 붕괴 이후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해외 개방의 폭이 확대되었다. 그 후 1997년 금융관리의 부실로 인한 위기를 맞아 일시 침체를 겪이까지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한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수입개방과 국제화의 과정에서 해외 문화의 영향이 더 커졌다. 한편 정치의 측면에서는 1964년 4.19 혁명 이후에 1965년부터 실질적으로 30여년간 지속된 군부의 집권기간에 독재정치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언론이 통제되다가 1993년 이후 군부의 집권이 종식되었다.

앞에서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문화의 맥락 요인들을 정치와 경제에 한정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국인의 가치관이 단지 국가 사회의 생태학적 환경 변화에 대한 수동적 대응반응만을 반영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한국인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간과 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 장래 목표나 계획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란 사회 문화적 환경의 생태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표출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상과 세계상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인생관이란 단지 환경 변화에 대한 수동적 대응반응만이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자기상과 세계상에 근거를 두고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장래 자기의 삶에 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이 과거 30여년 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관으로 생활해 왔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Morris와 Jones의 가치관 척도에 의해서 한정되는 인생관의 범위 안에서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을 알아보고, 과거 30여년 동안 약 10년 간격으로 네 시점을 경과하면서 동일한 척도와

표 1. 조사시점별로 조사에 참여한 전국대학생의 지역별, 성별 분포

지역	1970			1980			1993			2002		
	남 N(%)	여 N(%)	계 N(%)	남 N(%)	여 N(%)	계 N(%)	남 N(%)	여 N(%)	계 N(%)	남 N(%)	여 N(%)	계 N(%)
서울	267(34)	67( 8)	334(42)	97(17)	80(14)	177(31)	99(16)	76(12)	175(28)	137(19)	87(12)	224(31)
광주	59( 7)	54( 7)	113(14)	-	-	-	35( 6)	59(10)	94(15)	29( 4)	59( 8)	88(12)
강원	-	-	-	63(11)	30( 5)	93(16)	32( 5)	36( 6)	68(11)	39( 5)	44( 6)	83(11)
전북	68( 9)	67( 8)	135(17)	95(17)	31( 5)	126(22)	52( 8)	63(10)	115(19)	68( 9)	62( 8)	130(18)
부산	48( 6)	58( 7)	106(13)	40( 7)	52( 9)	92(16)	35( 6)	25( 4)	60( 8)	20( 2)	78(10)	98(13)
경북	62( 8)	39( 5)	101(13)	40( 7)	36( 6)	76(13)	42( 7)	63(10)	105(17)	42( 5)	47( 6)	89(12)
전체	504(64)	285(36)	789(100)	335(59)	229(41)	564(100)	295(48)	322(52)	617(100)	335(47)	377(52)	712(100)

기법으로 측정 한 인생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 연구방법

#### 조사의 대상

Morris의 인생관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역 및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2002년 5월 대학의 정규 강의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배부된 1000부 가운데 총 729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데 일정한 반응 패턴을 보여서 불성실하게 응답했으리라고 판단된 1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12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002년과 선행연구들에서 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의 성별 및 지역별 분포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sup>1)</sup> 한편 인생관의 선호 수준이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서울지역의 대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나 형제, 친지 등 성인들이 질문지에 반응하도록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얻었다. 성인에게 배부한 100부 가운데 92부(남 56, 여 36)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 척도의 내용 및 조사의 절차

조사에 사용한 가치관 척도로는 Morris와 Jones(1955)의 인생관(ways to live) 척도를 Dukes와 Dempsey(1966)가 수정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Morris와

Jones(1955)가 제작한 척도는 하나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양한 진술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 평정이 이루어진 근거를 정확하게 가려내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ukes와 Dempsey(1966)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내용의 진술문들로 수정한 척도를 제작하였다.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이 척도를 번역하고 두 영문학자의 수정을 거쳐서 제작하였다. 인생관 척도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관 1 :** 사람은 제각기 사회생활에 참여하되 그 참여는 사회를 뜰어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미 이룩해 놓은 가장 훌륭한 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

**인생관 2 :** 사람은 대부분의 행동을 혼자 해야 하며,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자기를 알고 반성과 명상을 통하여 자기 완성에 노력해야 한다.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인생의 중심을 자기 내부에 두어야 한다.

**인생관 3 :** 타인에 대한 동정이나 이해가 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대인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정(人情)과 우애(友愛)만이 인생에 보람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남의 의사를 받아들일 줄 알고, 남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의 문제를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인생관 4 :** 인생을 도덕적 훈련을 위한 도장(道場)처럼

1) 2002년도 조사의 실시에 협조해주신 김교현 교수(대전 자료), 김득란 교수(강원도 자료), 성한기 교수(경북 자료), 탁진국 교수(서울 자료), 강혜자 교수(전북, 전남 자료), 이민규 교수(경남 자료), 이해경 교수(경남 자료), 신용관, 김금미, 표승연 강사(서울 자료)께 감사드린다.

럼 생각하지 말고 잔치를 즐기듯 흥겹게 살아야 한다. 생활을 즐기고 -관능적으로도 즐기고- 멋있게 거침없이 살아야 한다. 마음내키는 대로 즐기고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따르는 것이 의지적, 도덕적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

**인생관 5 :** 사람은 사회적 집단 속에 들어가 협동과 우의 속에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남들과 힘을 합하여 공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즐거운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단체 활동에 모든 정력을 바치면서 서로 돕는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야말로 보람이 있다.

**인생관 6 :** 사람은 항상 구체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만큼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기술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만으로 자연이나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기술적 향상과 실제적인 행동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인생관 7 :** 한가지 생활 방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키우는 일이며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생기는 다소의 불편은 참아야 한다.

**인생관 8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것들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다. 즉 만족의 원천을 그저 목숨이 살아 있는 즐거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안락한 환경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즐거움, 마음놓고 휴식하는 즐거움 등에서 찾아야 한다.

**인생관 9 :** 인생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좋은 것들은 쫓아다닌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경쟁 속에 뛰어든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성급한 욕심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마음을 살찌게 하는 지혜가 우러나고 그 지혜의 힘으로 진정한 즐거움이나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인생관 10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제력(自制力)이다. 그러나 그 자제력은 현실로부터 편안하게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내답게 빈틈없이 자기의 행동을 통제해 나가는 역량이라야 한다. 따라서 항상 높은 이상을 견지해야 하며 안락과 본능의 유혹에 쉽게 굴복되어서는 안된다.

**인생관 11 :** 명상의 생활이야말로 참되고 보람있는 생활이다. 풍부한 내면 생활- 즉 높은 이상과 예민한 정서

를 간직할 수 있고 환상에 잠길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똑똑히 들여다 볼 수도 있는 내면 생활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다.

**인생관 12 :** 마음껏 정력을 발휘하는 육체적 활동이 야말로 보람있는 인생의 비결이다. 신중하게 앞을 내다 보고만 있거나 편안히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인생의 충족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근육을 움직이면서 장애를 극복하는 적극적 행동 - 즉 항상 현재를 위한 박력 있고 모험적인 행동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인생관 13 :** 사람은 자기의 고집으로 주위를 움직이려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남에게 봉사하고, 개인의 힘을 초월하는 우주의 목적에 순응하여야 한다.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소리 없이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대우주의 객관적 의지를 믿고 인도를 받아서 우주의 목적에 조용히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실시는 조사의 대상에게 13개 인생관 각각에 대해서 선호하는 정도를 7점 척도(1 대단히 싫다 ~ 7 대단히 좋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척도의 신뢰도

한덕웅(1971)은 4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조사 후 77일 만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적률상관계수는  $r=.68$ 이었고, 호/불호로 양분하여 시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r=.91$ 이었다. 13개 가치관들에 대한 선호 순위의 상관계수는  $r_s=.94$ 였다.

#### 자료의 분석

(1) 먼저 조사 시점별로 전국 대학생들이 인생관의 선호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순위를 산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차이를 검증하였다. (2) 인생관의 선호가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970년대 당시 서울지역에 거주한 대학생, 2002년 현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50대 성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두 평균간 차이검증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앙치와 사분편차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법대로 중앙치와 사분편차를 얻은 다음에 이 값을 평균과 표준편차

로 전환하여 차이검증에 사용하였다. 이 과정을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에서 이 인생관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한덕용, 1971, 1975; 손정락, 1982; 한덕용·이경성, 1994)와 마찬가지로 2002년에 얻은 자료도 Guilford의 연속범주법에 의해서 제작된 한국 대학생의 인생관 공통 척도를 사용하여 각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의 평정치를 산출하였다. 이 기법을 따르면 본 조사에서 얻은 평정치 1부터 7까지 범위는 0.35에서 4.41로 변환된다(1->0.35, 2->1.06, 3->1.61, 4->2.19, 5->3.05, 6-> 4.03, 7->4.41). 이와 같은 방법으로 13개 각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를 평정한 2002년 자료도 변환하여 중앙치와 사분편차를 구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 공통척도에서 득점들이 정상분포를 이루는 점을 근거로 중앙치와 사분편차를 정상분포의 z값으로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이 변환된 값들을 사용하여 차이검증에서는 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 결 과

지난 30 여년간 전국 대학생들의 인생관 선호도 변화

**전반적 변화의 추세 :** 표 2에 전국 대학생들이 13개 인생관들 각각에 대하여 선호도를 평정한 평균을 근거로 연도와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순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3에 평균 및 차이검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와 3으로부터 각 인생관들에 대한 선호도

순위와 아울러 평균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인생관의 특징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학생 자료에서 지난 30년 동안 매우 선호하는 인생관의 순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1970년대에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통제를 가장 선호하였으나(1위, 3.25), 2002년 조사에서는 4위로 순위와 평균이 모두 낮아졌다(4위, 3.12). 1970년대에 세 번째로 선호되었던 인생관인 명상을 통한 내적 생활(3위, 2.87) 역시 2002년 조사에서는 7위로서 순위와 평균이 낮아졌다(7위, 2.76). 한편 1970년대에 두 번째로 선호되었던 인생관인 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행동(2위, 2.91)은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가장 선호되는 인생관으로 변화되었다(1993년 1위 3.80, 2002년 1위 3.62).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선호 또한 197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선호도가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두 번째로 선호되는 인생관이었다(1970년 7위, 1980, 1993년 3위, 2002년 2위). 또한 여러 생활방식을 수용하는 융통성과 다양성의 추구는 1970년대에 다섯 번째(2.63)로 선호되었으나 이후 선호도가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세 번째(3.39)로 선호되었다.

둘째,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가장 선호도가 낮은 인생관은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1970, 1980, 1993 모두 13위, 순서대로 0.94,

표 2. 조사시점과 성별에 따른 전국 대학생의 인생관별 선호도 순위

인생관	조사시점	남				여				전 체			
		1970	1980	1993	2002	1970	1980	1993	2002	1970	1980	1993	2002
1.인류 유산의 이해와 보존을 위한 욕망의 억제와 중용적 태도		6	8	7	7	10	8	8	9	8	8	8	9
2.자기의 내면적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 완성		7	7	8	7	5	5	7	6	6	6	7	6
3.인정과 우애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9	3	3	2	4	4	4	3	7	3	3	2
4.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		13	13	13	13	13	13	13	12	13	13	13	12
5.사회적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협동과 우의		3	4	4	5	7	7	6	4	4	5	5	5
6.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행동		2	2	1	1	3	3	1	1	2	2	1	1
7.여러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융통성과 다양성		4	6	5	3	6	6	3	2	5	6	4	3
8.단순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12	12	12	10	12	12	12	8	12	12	12	8
9.욕망을 억제하고 수용적 태도로 지혜 획득		10	10	10	6	8	9	10	10	10	10	10	10
10.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통제		1	1	2	4	1	1	2	5	1	1	2	4
11.명상을 통한 내적 생활		5	5	6	7	2	2	5	7	3	4	6	7
12.정력적이고 모험적 활동을 통한 만족		8	9	8	11	11	10	9	11	9	9	9	11
13.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		11	11	11	12	8	11	11	13	11	11	11	13

표 3. 조사시점과 성별을 고려한 전국 대학생의 인생관 선호도 평균(표준편차)과 차이검증

인생관	조사시점	남				여				전체				성별	연도 차이		
		1970	1980	1993	2002	1970	1980	1993	2002	1970	1980	1993	2002		남	여	전체
1.인류 유산의 이해와 보존을 위한 욕망의 억제와 증용력태도		2.43 (0.90)	3.09 (0.80)	3.12 (1.13)	2.71 (1.13)	1.81 (0.85)	3.09 (1.28)	2.87 (1.16)	2.61 (0.99)	2.12 (0.99)	3.01 (0.83)	3.00 (0.77)	2.66 (0.77)	남>여	93>02>70	93>02>70	93>02>70
2.자기의 내면적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 완성		2.41 (1.05)	3.29 (1.48)	2.87 (1.36)	2.71 (1.36)	2.73 (0.96)	3.46 (1.29)	3.14 (1.35)	2.83 (0.99)	2.57 (0.99)	3.34 (0.97)	3.01 (0.92)	2.77 (0.92)	남>여	93>02>70	93>02>70	93>02>70
3.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2.07 (0.71)	3.84 (0.74)	3.67 (0.77)	3.58 (0.77)	2.76 (0.98)	3.48 (0.80)	3.31 (0.80)	3.38 (0.66)	2.42 (0.66)	3.72 (0.54)	3.49 (0.53)	3.48 (0.53)		93>02>70	93>02>70	93>02>70
4.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		1.15 (0.92)	1.43 (0.76)	1.35 (1.28)	2.03 (1.28)	0.73 (0.67)	1.49 (0.95)	1.41 (1.30)	2.20 (0.90)	0.94 (0.50)	1.46 (0.58)	1.38 (0.87)	2.12 (0.87)		02>93>70	02>93>70	02>93>70
5.사회적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협동과 우의		2.89 (1.04)	3.55 (0.89)	3.52 (1.05)	3.11 (1.05)	2.55 (1.01)	3.14 (0.92)	3.16 (0.92)	2.95 (0.72)	2.72 (0.72)	3.38 (0.61)	3.34 (0.61)	3.03 (0.61)	남>여	93>02>70	93>02>70	93>02>70
6.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행동		2.94 (1.01)	3.89 (0.62)	3.79 (0.80)	3.64 (0.80)	2.88 (0.93)	3.73 (0.65)	3.80 (0.79)	3.59 (0.64)	2.91 (0.64)	3.83 (0.43)	3.80 (0.53)	3.62 (0.53)		93>02>70	93>02>70	93>02>70
7.여러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융통성과 다양성		2.68 (1.10)	3.37 (0.83)	3.37 (0.85)	3.38 (0.85)	2.57 (0.98)	3.30 (0.83)	3.38 (0.83)	3.40 (0.83)	2.63 (0.67)	3.34 (0.56)	3.38 (0.56)	3.39 (0.56)		93>02>70	93>02>70	93>02>70
8.단순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1.29 (1.17)	1.76 (1.28)	1.66 (1.42)	2.71 (1.42)	1.27 (0.95)	1.64 (1.30)	1.63 (1.38)	2.77 (0.77)	1.28 (0.77)	1.73 (0.87)	1.65 (0.94)	2.74 (0.94)		02>93>70	02>93>70	02>93>70
9.욕망을 억제하고 수용적 태도로 지혜 획득		2.03 (1.11)	2.77 (1.23)	2.67 (1.26)	2.77 (1.26)	1.88 (1.25)	2.81 (1.22)	2.50 (1.22)	2.52 (0.33)	1.96 (0.33)	2.79 (0.83)	2.59 (0.84)	2.65 (0.84)	남>여	93>02>70	93>02>70	93>02>70
10.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통제		3.30 (0.95)	4.08 (0.73)	3.78 (0.89)	3.30 (0.89)	3.19 (0.93)	3.84 (0.83)	3.42 (1.04)	2.94 (0.63)	3.25 (0.63)	4.01 (0.55)	3.60 (0.67)	3.12 (0.67)	남>여	93>02>70	93>70>02	93>70>02
11.명상을 통한 내적 생활		2.61 (1.19)	3.52 (0.95)	3.18 (0.98)	2.71 (0.98)	3.12 (0.99)	3.79 (0.95)	3.26 (0.98)	2.80 (0.76)	2.87 (0.76)	3.64 (0.64)	3.22 (0.66)	2.76 (0.66)	남>여	93>02>70	93>70>02	93>70>02
12.경력적이고 모험적 활동을 통한 만족		2.27 (1.05)	3.03 (0.98)	2.87 (1.10)	2.68 (1.10)	1.73 (0.42)	2.53 (1.01)	2.67 (1.16)	2.50 (0.64)	2.00 (0.64)	2.83 (0.68)	2.77 (0.45)	2.59 (0.45)	남>여	93>02>70	93>02>70	93>02>70
13.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		1.88 (1.11)	2.66 (1.19)	2.34 (1.16)	2.08 (1.16)	1.88 (1.08)	2.36 (1.01)	2.04 (0.89)	2.10 (0.74)	1.88 (0.74)	2.56 (0.76)	2.19 (0.68)	2.09 (0.68)	남>여	93>02>70	02>70	93>02>70

주) 1980년에는 사분편차가 보고되지 않음.

1.46, 1.38)과 단순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었다(1970, 1980, 1993 모두 12위, 순서대로 1.28, 1.73, 1.65). 이 인생관들에 대한 선호도는 2002년에는 모두 다소 높아졌다(감각적 즐거움 추구 12위 2.12, 손쉬운 즐거움 추구 8위 2.74). 반면에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1위로 낮았으나 1990년대 이후 최근 10년 사이 선호도가 더욱 저하되어 2002년에는 최하위였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최근 대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더 선호하고, 인정 있고 우애 있는 대인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각적 즐거움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의 추구에 대한 선호도 역시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반

면에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는 90년대 이후 최근 10년 사이 선호도가 더욱 저하되어 2002년에는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넷째, 조사가 실시된 시점에 따라서 13개 인생관에 대한 선호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 시점간 상호상관을 선출하여 상호상관을 살펴본 결과(표 4)에서 13개 인생관에 대한 선호는 대체로 시점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상호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인생관에 대한 선호 순위의 상호상관계수는 매우 높아서 유사하였다,  $r(1970, 1980)=.97$ ,  $r(1980, 1993)=.98$ ,  $r(1970, 1993)=.94$ . 그러나 2000년대와 다른 시점간에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의 유사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r(1970, 2002)=.69$ ,  $r(1980, 2002)=.73$ ,  $r(1993, 2002)=.81$ .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 없이 유



사하였다. 이 결과는 1990년 이후 과거 10여년 동안 가치관의 변화가 70년 이후의 다른 시점보다 더 컸음을 시사한다. 또한 2002년을 기준으로 시점이 과거로 멀어질수록 상관계수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시점의 간격이 클수록 가치관의 선호가 누가적으로 덜 유사해졌음을 시사한다.

표 4. 조사시점간 인생관 선호 순위의 상호상관계수

	1970	1980	1993	2002	1970	1980	1993	2002
1970	-				-	0.96**	0.92***	0.68*
1980	0.97***	-			0.91***	-	0.96***	0.66*
1993	0.94***	0.98***	-		0.91***	0.98***	-	0.78**
2002	0.69**	0.73**	0.81**	-	0.66*	0.77**	0.83***	-

주) 좌측 상호상관 행렬은 전체 반응에서 산출. 오른쪽의 상호상관 행렬에서 좌측 하단은 남성, 우측 하단은 여성들 자료에서 얻은 상호상관 결과. 모두 .05 이상으로 유의.

**성별에 따른 변화 :**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성별 차이를 보이는 인생관을 살펴보면 지난 30여년 동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내면생활을 중심으로 자기 완성하려는 인생관의 선호도가 높았다(여 6위 2.90, 남 8위 2.66). 반면에 남학생들은 여대생들에 비해서 집단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동하는 인생관을 선호하였다(여 7위 2.89, 남 3위 3.17). 이 결과로 볼 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개인의 자기 완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남학생들은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협동을 중시하는 집단 지향의 선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시대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반응을 비교한 결과가 서로 다른 인생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0년대에는 여대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인정 있고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추구를 더 선호하였는데(여 4위 2.76, 남 9위 2.07), 2000년대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남녀 모두 이 인생관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남학생들만이 이 인생관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여 3위 3.38, 남 2위 3.58).

또한 1970년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인류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욕망을 억제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남 6위 2.43, 여 13위 0.73)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남 13위 1.15, 여 13위 0.73)과

모험 활동을 통한 만족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았다(남 8위 2.27, 여 11위 1.73). 그러나 2000년대에는 이 인생관들에 대한 선호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2000년대에는 남녀 모두 인류유산의 보존과 욕망 억제에 대한 선호는 중간 수준을 유지하였고(남 7위 2.71, 여 9위 2.61), 자의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의 추구는 가장 덜 선호하는 인생관들 가운데 하나였다(남 13위 2.03, 여 12위 2.20). 그리고 모험활동을 통한 만족에 대한 선호도 남녀 차이 없이 높은 편이었다(남 4위 2.68, 여 4위 2.50).

한편 1970년대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는 남녀간에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인 인생관으로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인생관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에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인생관이 남녀 모두 가장 선호하는 인생관이었다(남 1위 3.30, 여 1위 3.19). 그러나 2000년대에는 선호가 다소 낮아졌으며 순위나 평균으로 볼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이 인생관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았다(남 4위 3.30, 여 5위 2.94).

**연령에 따른 인생관의 선호도 변화**

이 절에서는 각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연령 증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연령에 따른 인생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1970년대에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보인 인생관에 대한 선호가 30년이 지난 현재 50세 경에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2002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및 50대 성인의 자료와 1970년 당시 서울에 거주했던 20대 대학생의 자료를 비교하여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값들로부터 시점간의 차이보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인생관의 선호도가 달라졌다고 해석하려면 우선 1970년대 20대와 2000년대 20대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으면서 1970년대 20대와 2000년대 50대의 비교에서는 차이를 보여야 한다. 이 기준에 부합되는 인생관으로 20대보다 50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생관들은 인생관 1, 9, 10, 13이고, 50대보다 20대에서 선호가 높은 인생관은 인생관 4, 8, 6, 7이었다. 이 결과들 가운데 20대보다 50대의 장년에 이르러 더 선호하는 인생관

을 살펴보고, 이어서 50대보다 20대 청년기에 더 선호하는 인생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대보다 50대에서 이상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고(인생관 10. 1970년대 20대 4위 3.09, 2000년대 50대 1위 3.41), 인류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욕망을 억제하며(인생관 1. 1970년대 20대, 7위 2.42, 2000년대 50대 3위 3.35), 수용적 태도로 지혜를 획득하고(인생관 9. 1970년대 20대 9위 2.62, 2000년대 50대 9위 2.83),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인생관(인생관 13. 1970년대 20대 12위 1.95, 2000년대 50대 12위 2.44)을 선호하였다.

한편 50대에는 20대의 청년기보다 노력을 통해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인생관 6. 1970년대 20대 1

위 3.62, 2000년대 50대 4위 3.33), 여러 가지 생활방식을 융통성 있게 수용하며(인생관 7. 1970년대 20대 2위 3.53, 2000년대 50대 6위 2.95), 단순하고 편의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인생관 8. 1970년대 20대 6위 2.82, 2000년대 50대 11위 2.50), 자의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인생관(인생관 4. 1970년대 20대 13위 1.89, 2000년대 50대 13위 1.41)들에 대한 선호 수준은 낮아졌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성별을 구분하여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에는 인생관 2와 인생관 13에 대한 선호도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인생관 1, 5, 10, 및 11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남성

표 5. 1970년과 2002년 자료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생관의 선호도 평균(표준편차)과 차이검증

인생관	남			여			전 체			2002년 20대와 1970년 20대 비교		2002년 50대와 1970년 20대 비교	
	1970 20대	2002 20대	2002 50대	1970 20대	2002 20대	2002 50대	1970 20대	2002 20대	2002 50대	남	여	남	여
	(0.79)	(0.73)	(0.74)	(0.76)	(0.81)	(0.79)	(0.76)	(0.77)					
1. 인류 유산의 이해와 보존을 위한 욕망의 억제와 중용적 태도	2.17	2.38	3.38	2.55	2.45	3.31	2.36	2.42	3.35	02>70 <sup>1)</sup>		50>20	50>20 <sup>2)</sup>
2. 자기의 내면적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 완성	2.18	2.37	2.71	2.40	3.04	2.99	2.29	2.71	2.85	02>70		50>20	50>20
3.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3.26	3.66	3.41	2.50	3.28	3.30	2.88	3.47	3.36	02>70	02>70		50>20
4.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	1.56	1.88	1.62	1.16	1.90	1.20	1.36	1.89	1.41	02>70	02>70		
5. 사회적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협동과 우의	2.67	3.06	3.08	2.51	2.71	2.94	2.59	2.89	3.01	02>70		50>20	50>20
6. 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행동	3.01	3.57	3.51	2.95	3.66	3.14	2.98	3.62	3.33	02>70	02>70		50>20
7. 여러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융통성과 다양성	2.54	3.45	3.13	2.35	3.61	2.76	2.45	3.53	2.95	02>70	02>70	50>20	50>20
8. 단순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1.60	2.81	2.49	1.23	2.82	2.50	1.42	2.82	2.50	02>70	02>70	50>20	50>20
9. 욕망을 억제하고 수용적 태도로 지혜 획득	2.10	2.72	2.74	2.07	2.51	2.91	2.09	2.62	2.83	02>70	02>70	50>20	50>20
10.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통제	3.00	3.32	3.56	2.61	2.86	3.26	2.81	3.09	3.41	02>70		50>20	50>20
11. 명상을 통한 내적 생활	3.05	2.60	2.89	3.24	3.04	2.93	3.15	2.82	2.91	02<70			50<20
12. 정력적이고 모험적 활동을 통한 만족	2.34	2.57	2.70	1.53	2.48	2.66	1.94	2.53	2.68	02>70	02>70	50>20	50>20
13.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	1.80	1.96	2.33	1.50	1.94	2.55	1.65	1.95	2.44	02>70		50>20	50>20
	(0.99)	(0.75)	(0.81)	(0.95)	(0.69)	(0.65)		(0.73)	(0.73)				

주) 차이검증의 비교 결과표에서 1) 2002년 20대는 02로, 1970년 20대는 70으로 표기, 2) 20대는 20, 50대는 50으로 표기  
1970년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전체의 사분편차는 보고되지 않음

들의 경우 20대보다 50대에서 내면생활을 중심으로 자신을 완성하고(인생관 2. 1970년대 2.18, 2000년대 2.71),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인생관(인생관 13. 1970년대 1.80, 2000년대 2.33)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았다.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50대 장년에서 20대보다 인류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욕망을 억제하고(인생관 1. 1970년대 2.55, 2000년대 3.31), 사회 공동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협동하며(인생관 5. 1970년대 2.51, 2000년대 2.94), 이상 추구를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인생관(인생관 10. 1970년대 2.61, 2000년대 3.26)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았다. 다만 2002년도에 50대인 여성들은 명상을 통한 내적 생활(인생관 11. 1970년대 3.24, 2000년대 2.93)에 대해서 20대 연령이었을 때보다 덜 선호하였다. 연령에 따른 효과를 남녀별로 살펴본 이 결과를 종합해 볼 때 50대 장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을 완성하고 종교에 귀의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며, 여성들은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 논 의

논의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결과가 나타난 사회 문화의 배경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들 가운데 비록 직접으로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다루지는 않았더라도 한국 대학생들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가운데 본 연구와 비교해서 주목할만한 시사점들을 선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과거 30년 동안 인생관의 변화

**일관된 선호도를 보인 인생관**: 먼저 과거 30년 동안 네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선호도에서 큰 변화를 보인 인생관들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일관되게 특히 선호하거나 극히 싫어한 가치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가장 싫어하는 인생관으로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2002년에 12위로 바뀌기 이전까지 세 시점들에서 모두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한국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현대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배경을 설명

해 볼 수 있다. 최근까지 한국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허용되지 않았고 즐길만한 시설이나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역사의 사실로 본다면 현대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이전부터 한국사회에서 매우 오랜 기간 대다수 국민들이 굶주림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의적이고 감각적인 쾌락 추구를 허용하기 어려운 생태환경에서 생활했다. 이와 같은 생태환경에서는 자의적 행위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관이 도덕의 측면에서 회피하여야 할 금기로 여기고 생존의 기능에서도 배척해야 할 가치로서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특히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자의적 생활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에 대해서 금욕주의 가치관이 대두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태환경은 특히 최근 20여 년 동안에 한국사회에서 이룩된 경제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므로 최근에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가 최하위 수준을 벗어난 결과는 변화된 생태환경에 대응하면서 자유로움과 감각적 쾌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삶의 적응 양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이 이 가치관에 대한 선호에서 보인 차이점은 두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필자가 보기로는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에 이 가치관들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으로 형성된 과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이 80년대 이후 이 인생관들에 대한 선호도 수준이 다소 높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생태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 가치에 대한 선호 수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장차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이 인생관들에 대해서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화가 큰 인생관**: 다음으로 선호 수준에서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인 인생관들을 살펴보자. 지난 30년 동안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인생관은 70-80년대와 90-2000년대에 서로 달랐다. 70-80년대까지 가장 선호한 인생관은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통제였다.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는 1990년대에 2위였다가 2002년도에는 4위까지 낮아졌다. 이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이

삶에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통제를 비교적 일관성 있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선호하지만 최근에 선호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 가치관은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기를 추구하기 위하여 인격의 수양 혹은 도야를 강조하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면 이 인생관은 Bond (1987)가 제안한 유교의 가치들 가운데 자기계발이나 인격수양과 유사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 대학생들이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통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최근에도 여전히 높게 선호하지만 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선호도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명상을 통한 내적 생활에 몰두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 또한 1990년대 이후 최근 10년 사이 선호도가 더욱 저하되었다(1970년 3위, 1980년 4위, 1993년 6위, 2002년 7위).

한편 70-80년대와 달리 90-2000년대에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인생관은 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행동이었다. 70-80년대에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 순위는 2위로서 90년대 이후 선호도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실지향의 적극적 행동 경향성은 한국 정치에서 1990년대 이후 정권이 군부에서 민간으로 바뀌면서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측면에서 젊은 계층의 참여와 관심이 더욱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70-80년대와 90-2000년대에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생관이 달라졌음을 살펴보았다. 이 변화된 단면들을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면 최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생관이 변화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70-80년대에는 이상을 달성하고자 자기 수양을 추구하는 자기 내부 지향의 인생관이 가장 선호되었으나 90년대 정권의 민정이양과 아울러 경제 발전에 근거를 두는 한국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서 현실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대의 현실 지향의 인생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져서 가장 선호하는 인생관이 되었다.

다음으로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추구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더 높아졌다.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 순위는 1970년대에 7위였으나 80-90년대에는 3위로 높아지고, 2002년에는 2위로 더욱 높아졌다. 이 결과는 70년대 이

후 한국의 경제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면서 사회가 생산성과 효율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면서 최근 좋은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외의 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인정(人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한국인들이 인정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과 위주의 경쟁 체제가 심화되면서 인정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회 상황으로 급속하게 변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추구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급속히 높아진 결과는 이 사회변화에서 초래된 대학생들의 대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인정과 우애가 우세하던 70년대에 비해서 각박하고 경쟁으로 이어지는 2000년의 한국 사회 현실에서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서 높은 선호도로 나타났다.

한편 단순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선호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는 1990년까지 세 시점에서 모두 12위로서 일관되게 두 번째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8위로 급속히 높아져 이 현상은 이상을 추구하고 자기통제를 추구하는 인생관의 선호도가 낮아진 경향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통제 수준이 낮아지고 이와 함께 단순하고 손쉬운 즐거움의 추구를 금기로 여겨서 회피하던 추세가 최근 완화되고 있다. 이 두 현상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사실과 연결 지어 보면 생활에서 높은 이상을 기준으로 어려운 성취 과제를 생활에서 달성하려는 추세가 완화되고 대의 지향의 현실성이 삶에서 추구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러 상황 방식을 받아들이는 융통성과 다양성의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 역시 70년대부터의 시점에서 차례대로 5위, 6위, 4위, 3위로 점진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 결과는 타인들이 보이는 다양한 견해와 행동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민정신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인생관 변화의 차이:** 지난 30년 동안 남성과 여성이 인생관들의 선호에서 보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197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작아졌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1970년대에는 여러 가치관들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2002년에는 매우 유사해졌다.

먼저 이 사실과 관련되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1970년대에는 명상을 통한 내적 생활에 대해서 여성의 선호도는 2위로 매우 높았으나 남성은 5위였다. 그러나 1980년에는 남녀 각각 6위와 5위로 선호도가 유사하다가 2002년에는 동일하게 7위였다. 이 결과는 지난 30년 동안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로 볼 때 남성은 5위에서 7위로 바뀌었으나 여성은 2위에서 7위로 현저하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여성들이 사회 현실에 당면하여 대외 지향으로 인생관의 선호도가 변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사회적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 협동과 우의에 대한 선호를 보면 남성의 경우 1970년 3위에서 2002년에 5위로 선호도가 낮아졌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두 시점들에서 7위로부터 4위로 선호도가 오히려 높아졌다. 이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추세가 급속히 촉진되고 이른바 여권운동 등으로 집합적 노력의 기회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선호하는 인생관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서로 달랐다. 이 인생관에 대한 남성들의 선호도는 1970년에 9위였고 1980년대 3위로 급속하게 바뀌었다가 2002년에는 2위였다. 이처럼 남성들은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에서 지난 30년 동안 선호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큰 변화를 보였으나 여성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위였다가 2002년도에는 3위로서 지난 30년 간 변화가 매우 작았다.

또한 최근 여성들은 금융과 수용에 의한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 수준이 낮아졌지만(1970년 8위, 2002년 10위), 남성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가 크게 높아졌다(1970년 10위, 2002년 6위). 이 현상은 남성이 억제와 수용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성이 이와 달리 억제와 수용성을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정력적이고 모험적 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관에 대해서 70, 80년대에는 남성들의 선호 수준(1970년 8위, 1980년 9위)이 여성들(1970년 11위, 1980년 10위)보다 높았으나 2002년에는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11위로 낮아져서 여성과 동일한 순위가 되었다. 이 결과 역시 최근 남성의 모험 추구 경향이 다소 낮아졌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변화 :**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20대이던 사람들이 그 후 30년을 더 생활하여 2002년도에 50대에 이르러서 어떤 인생관의 차이를 보이는지 추론하였다. 이 결과에서 20대보다 50대에 이르러 선호도가 높아진 인생관들로는 이상을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고(20대 4위, 50대 1위), 인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욕망을 억제하고(20대 7위, 50대 3위), 수용적 태도로 지혜를 획득하고,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인생관이었다.

이 가운데 이상을 위한 자기통제는 앞에서 논의한대로 자기수양의 전통 가치를 반영한다. 장년기 이후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현상은 가정과 직장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령이 장년기 이후에 이르면 자기 절제의 요구가 더 높아짐을 시사한다. 인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욕망을 억제하는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상은 장년기 연령에 이르면서 보수성이 높아짐을 반영한다. 그리고 50대에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종교적 인생관에 대해서 순위는 동일하게 가장 낮았으나 선호 수준은 20대보다 높아져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종교적 인생관을 지향함을 볼 수 있다.

#### 가치관을 다룬 다른 연구들과 비교

가치관을 다룬 연구 결과들을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려면 척도, 조사 대상 및 반응 방법에서 비교의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가치관 연구들 가운데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연구들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Morris의 인생관 척도를 1950년, 1970년, 그리고 1979년에 미국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얻은 조사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이어서 한국에서 대학생의 가치관을 다룬 선행 연구들 가운데 주로 가치관의 선호

도 순위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미국에서 Morris의 인생관 척도를 사용한 연구 결과와 비교** : Morris와 Small(1970)과 Thompson(1981)은 Morris(1956) 이후 이 척도를 사용하여 미국 대학생들의 인생관이 1950년대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는데 중요한 자료를 보고했다. 1950년대 자료는 Morris(1956)에 의해서 보고되었는데 조사에 참가한 미국 대학생은 2015명이었다. 1970년 자료는 Morris와 Small(1971)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 조사의 대상은 미국 19개 대학의 대학생 1217명이었다. 1978년의 조사결과는 Thompson(1981)이 북부미시간대, 오히이오 주립대, 퍼듀대와 테네시대 학생 1006명(남학생 468명, 여학생 538명)의 자료를 분석해서 얻었다. 미국 대학생의 자료는 1950년부터 1980년까지 30년에 걸쳐있고 본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 30년 동안 얻은 자료를 싣고 있다. 그러므로 두 연구에서 조사 시점이 동일한 1970년과 1980년의 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1970년도와 1980년에 두 나라 대학생들이 보이는 인생관의 선호도 순위를 비교하여 논의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미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연구와 본 연구에서 얻은 2002년 결과도 제시하여 변화의 추이를 논의한다(표 6 참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과 1980년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이 인생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먼저 2000년대에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생관이며 1970년 당시에도 높은 선호를 보였던(남 2위, 여 3위) 현실 사회에서 노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인생관은 미국에서 1950년대에만 3위로서 높은 선호를 보였을 뿐 1970년대에 남자 2위, 여자 6위였다가 1979년에는 선호도가 급속히 낮아졌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1970년대에 중간 이상의 선호(남 4위, 여 6위)를 보였으나 2000년대에 선호 수준이 더 높아진(남 3위, 여 2위) 여러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는 융통성과 다양성의 추구는 미국에서 1950년대 이후 1970년(남녀 1위)과 1979년(남 1위, 여 2위) 시점까지 30여 년 동안 가장 선호되는 인생관이었다. 이 결과로부터 한국의 대학생들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융통성과 다양성 가치를 수용하는 수준이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일관되게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인생관인 이상의 추구를 위한 자기통제(2000년 남 4위, 여 5위, 1970년 남녀 모두 1위)는 1950년대에도 미국 대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생관이었는데(1950년 남 8위, 여 9위) 1970년(남 11위, 여 12위)과 1979년도(남녀 10위)에는 선호도가 더욱 낮아졌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인생관인 자의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의 추구(2000년 남 13, 여 12, 1980년 남 여 13, 1970 남 13, 여 12위)에 대해서 미국 대학생들

표 6. 한국(1970, 1980, 2002)과 미국 연구결과(1950, 1970, 1979)의 비교

인생관	한 국						미 국					
	2002		1980		1970		1979		1970		195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인류유산 이해,보존 위한 욕망 억제와 중용적 태도	7	9	8	8	6	10	7	7	8	8	2	2
2.자기의 내면적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 완성	7	6	7	5	7	5	13	12	10	11	11	12
3.인정과 우에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2	3	3	4	9	4	5	5	5	2	7	4
4.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	13	12	13	13	13	13	6	6	6	4	9	8
5.사회적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 협동과 우의	5	4	4	7	3	7	4	4	7	10	6	6
6.현실 사회에서 노력 통하여 과제 해결하는 적극 행동	1	1	2	3	2	3	8	8	2	6	3	3
7.여러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융통성과 다양성	3	2	6	6	4	6	2	1	1	1	1	1
8.단순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	10	8	12	12	12	12	1	2	4	3	4	5
9.욕망을 억제하고 수용적 태도로 지혜 획득	6	10	10	9	10	8	9	9	9	7	10	10
10.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통제	4	5	1	1	1	1	10	10	11	12	8	9
11.명상을 통한 내적 생활	7	7	5	2	5	2	11	11	12	9	12	11
12.정력적이고 모험적 활동을 통한 만족	11	11	9	10	8	11	3	3	3	5	5	7
13.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	12	13	11	11	11	8	12	13	13	13	13	13

은 1970년도(남 6위, 여 4위)와 1979년도(남녀 6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였다. 앞의 두 인생관의 연구 결과로부터 한국 대학생들을 미국 대학생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감각적이고 흥겨운 생활을 억제하고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통제를 실행하는 삶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비록 2002년 시점에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국문화에서 이 인생관들이 유교문화와 관련된다는 필자의 관점은 앞에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대학생들은 정력적이고 모험적 활동을 통한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관(1970년부터 네 시점에서 11, 11, 8, 11위)을 선호하는 수준이 매우 낮았는데 미국 대학생들은 남자(1970년과 1979년 모두 3위)나 여자(1970년 5위, 1979년 3위) 모두 선호도가 높아서 두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 대학생들은 최근까지(2002년 남녀 1위)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매우 낮다. 한국문화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지속된 농경생활과 생활공간의 폐쇄성이 높은 지정학적 환경이 모험활동의 요구를 약화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한국대학생들은 자기의 내면생활을 중심으로 자기완성하는 가치관에 대한 선호 순위가 중간 이상(1970년과 1980년 모두 남자 7위, 여자 5위)으로 2002년까지 지속되고 있으나(2002년 남 7위, 여 5위) 미국 대학생들은 이 인생관에 대한 선호도가 극히 낮고(1970년 남 10위, 여 11위) 1979년에는 더 낮아졌다(남 13위, 여 12위). 이 결과로부터 비록 최근에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지향성이 높아졌으나 내부지향성에서는 미국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하고 손쉬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관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서 선호도가 낮게 평가되었는데(1970년부터 1993년까지 12위, 2002년 남 10위, 여 8위) 미국 대학생들은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인생관이었다(1950년 남 4위 여 5위, 1970년 남 4위 여 3위, 1979년 남 1위 여 2위). 이 인생관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1970년 초보다 1970년 말에 더 높아져서 남녀 각각 1위와 2위의 선호 순위가 되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으로 흥겨운 생활에 대한 결과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낮고(1970, 1980년 모두 13위) 미국 대학생의 선호 순위가 높은(1970 남 6위 여 4위,

1979 남녀 6위) 결과는 위의 결과와 일관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1950년대에는 이 가치관에 대한 선호 순위가 남녀 각각 9위와 8위로서 낮았으나 1970년대 이후 선호 수준이 높아졌다. 미국에서 이 결과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급속한 사회변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은 한국사회에서 지난 30년 동안 사회경제의 변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관되게 이 두 인생관들에 대하여 매우 낮은 선호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Rokeach 척도를 이용한 연구 결과와 비교 :** 지난 20년 동안 세 시점(2002년 1246명, 1992년 2627명, 1982년 3401명)에서 필자와 공동연구자(한덕용·탁진국, 1993; 한덕용·이정성, 2003 인쇄중)가 한국의 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적가치를 조사해서 얻은 결과들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있는 부분을 논의하기로 한다. Rokeach의 가치척도는 궁극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가치와 수단가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이 가치척도는 이 두 가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18개 항목들로 구성되는 가치들을 제시하고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가장 선호된 목적적 가치들은 가정의 안녕(1982년 1, 1992년 1, 2002년 2위), 마음의 평화(세 시점의 각 순위, 3, 2, 3), 행복(4, 4, 1), 자기금지(6, 3, 4), 참다운 우정(7, 5, 5) 등이었다. 이 가운데 자신에 대한 금지가 본 연구의 인생관 가운데 자기완성이나 이상추구를 위한 자기통제와 연결되고, 한편으로 참다운 우정이 본 연구의 인정과 우애 있는 대인관계와 각각 유사하다면, 이 두 연구에서 이 가치들에 대해서 모두 유사하게 높은 선호 순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선호도가 낮은 가치들은 미래구원(18, 18, 18), 신나는 생활(17, 17, 14), 아름다움(14, 16, 16)이었다. 이 가운데 미래구원이나 신나는 생활은 각각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주의 초월적 목적과 의지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인생관(인생관 13) 및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감각적이고 신나는 생활(인생관 4)과 각각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인생관들에 대한 2002년도 선호도 순위는 각각 13위와 12위로서 모두 최하위에 해당하는 인생관들이었다. 그

러므로 이 결과 역시 두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동안 Rokeach 척도에서 큰 변화를 보인 항목들은 나라의 안전(2, 11, 17)이었으며, 이의 평화로운 생활(8, 12, 13), 평등(10, 10, 15)의 선호 순위가 낮아졌다. 반면에 행복(4, 4, 1), 즐거움(16, 14, 10)과 안락한 생활(15, 15, 11), 성숙한 사랑(12, 9, 8)의 선호 순위는 높아졌다. 이 가운데 최근에 행복, 즐거움 및 안락한 생활에 대한 순위가 높아진 사실은 본 연구에서 자의적 즐거움과 흥겨운 생활이나 단순하고 손쉬운 즐거움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아진 현상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Bond의 40개 가치들을 이용한 연구 결과와 비교**  
: 차재호와 장영수(1992)는 Bond(1987)가 유교적 가치들로 제시한 40개 가치 항목들을 사용하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120명에게 9점 척도에 평정토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매우 가치있다고 평가한 항목들 가운데 ① 허물없는 친구를 하나 두는 것(8.1), ② 자기 계발(7.7), ③ 성실성(7.7), ④ 신뢰성(7.6), 및 ⑤ 타인포용 등이 높은 평정치를 보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요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요인별 특징을 산출했을 때도 ① 친애(8.1), ② 성실(7.48), ③ 인격수양(7.47), ④ 인화(7.31), ⑤ 성취(7.29) 등의 가치가 중요시되었다. 이 결과들 가운데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친애, 인격수양, 타인포용, 인화, 성취의 가치들은 본 연구에서 선호된 인정과 우애, 자기통제와 이상추구, 융통성, 상호협조, 현실극복 등과 각각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덕웅(2002) 연구 결과와 비교**: 본 연구의 결과를 한덕웅(2002)이 장차 한국사회를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치들이 중요한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도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을 알 수 있으며 흥미있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한덕웅의 연구(2002)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Morris의 인생관척도에 포함되는 가치들과 아울러 여러 가치관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들을 수집하여 499개로 정리하고 서울, 대전 및 대구에 소재한 대학생 317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동사회의 중요한 가치로서 순위가 매우 높거나 낮은 가치들 가운데 본 연구와 비교해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들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

저 이 조사에서 중요도가 100위 안에 포함되는 가치들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가치는 화목/인정/인간관계였다. 이 범주에는 허물없는 친구(17위), 진정한 우정(31위), 친밀한 인간관계(41위), 및 인정(51위)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인생관척도 가운데 인정있고 우애있는 인간관계가 이 가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인생관은 1970년에 7위였다가 1980, 1990년대에는 3위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었고, 2002년에는 2위로 가치가 상승하여 두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현실 사회에서 노력하는 적극 행동에 대해서 1970년과 1980년(2위)보다 1990년과 2000년(1위)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 인생관에서 진취성(47위), 행동실천(43위), 그리고 실천력(74위)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면 비록 본 연구와 중요도는 다소 다르지만 이 연구의 결과도 두 연구들에서 일치되게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통제의 인생관은 1970과 1980년에는 1위의 선호도를 보이다가 1993년에 2위, 그리고 2002년에 4위로 선호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중요한 가치였다. 이 인생관이 자기계발(16위), 자기수양(62위) 및 인격완성(65위)의 요소를 의미한다면 이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이 가치가 한국에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반영한다는 조사 결과도 얻었으므로 앞의 논의에서 제시한 필자의 해석이 대학생들의 판단에 의해서도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과거 30여 년 동안 10년마다 네 시점에서 동일 지역의 표본을 표집하여 동일한 내용과 측정 기법으로 인생관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연령이나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낸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를 보면 2002년의 시점에서만 성인의 자료가 수집되고 성인의 표집도 서울지역에 제한되고 사례 수가 작아서 분석의 결과를 전국의 성인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또한 2002년 이전 시점에서 세대 차이를 시대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인생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나은영·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37-60.
- 손정탁 (1982). Morris 척도에 의한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연구.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 24권 인문사회과학편*. 203-210.
- 조남국 (1994). Schwartz와 Bilsky의 보편적 가치 구조 이론에 대한 방법적 비판 : SSA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2), 55-69.
- 차재호 (1987). 한국 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화와 적응 문제. *현대사회*, 7, 126-142.
- 차재호 (1989).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미발표 논문.
- 차재호·장영수 (1992). 한국 대학생들의 중요한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6(2), 123-136.
- 차재호·정지원 (199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50-163.
- 한덕용 (1971).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한 연구(I) : 인격형적 모델에 따른 연구.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 26-39.
- 한덕용 (1975).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II) : 인격형 모형에 따른 연구.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2, 117-128.
- 한덕용·이경성 (1994). 인생관으로 측정한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연구(III) : 인격형 모형에 따른 20년 간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33(2), 171-196.
- 한덕용·탁진국 (1993).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 Rokeach 척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0, 171-182.
- 한덕용 (2002). 한국문화는 유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4-260.
- 한덕용·이경성 (인쇄중). Rokeach 척도로 측정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3.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 The Dorsey Press.
- Bond, M. H. (1987). *Chinese culture connection*. Hongkong University Press.
- Dukes, W. F., & Dempsey, P. (1966). Judging complex value stimuli : An examination and revision of Morris paths of lif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6, 871-882.
- Kluckhohn, F. R. (1959). Dominant and variant value orientation. In Kluckhohn, C., and Murry, H. A. (Eds),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 N. Y. : Alfred. A. Knopf(2nd ed).
-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8). Palo Alto, CA : Annual Reviews.
- Morris, C., & Jones, L. (1955). Value scales and dimensions.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1, 523-535.
- Morris, C. W. (1956b). *Varieties of human value*.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 Morris, C., & Small, L. (1971). Changes in conceptions of the good life by American college students from 1950 to 1970.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254-260.
- Osgood, C., Wase, F., & Morris, C. (1961). Analysis of the connotative meanings of a variety of human values as expressed by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2, 62-73.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 Y. : The Free Press.
- Schwartz, S. H. (1994). Beyond individualism/collectivism : New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In U. Kim., H. C. Triandis., C. K.,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rull, T. K., & Wyer, R. S., Jr. (1986). The role of chronic and temporary goals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N. Y. : Guilford Press.
- Thompson, K. S. (1981). Changes in the values and life-style preference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2, 506-518.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70), Lincoln & Lond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inthrop, H. (1959). Psychology and value : A critique of Morris' approach to evaluation as behavior.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61, 13-37.

## Changes in ways to live of the Korean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Doug-Woong Hahn and Kyung-Seo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W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Korean college students' conceptions of the good life over last 30 years. Morris's Ways to Live scale was used to gather nationwide data from 712 students and 92 adults in 2002.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evious studies published in 1970, 1982, 1993. There were important changes in students' conceptions of the good life during last 30 yea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 (1) The most preferred way of life in 1970 was 'Dignity, self-control, but without retreat from the world', but preference for it was lowered in 2002. The most preferred way of life in 1990 and 2002 was 'Activity, constant striving for improved techniques to control nature and society'. (2) From 1970s' to 1990s', the least preferred way of life was 'Abandonment, sensuous enjoyment of life; solitude and sociality both are necessary'. But the least preferred way of life was 'Let oneself be used, remain close to persons and nature' in 2002. (3) Contrary to the twenties, men in the fifties preferred more 'Self-sufficiency, understanding of self, avoidance of outward activity' and 'Let oneself be used, remain close to person and nature'. Women in the fifties preferred 'Activity, constant striving for improved techniques to control nature and society'.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evious studies published in Korea and abroad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mentioned.

**Key words** : value orientation, Morris' Ways to Live Scale, changes in way of life, Korean, survey research

원고접수 : 2002년 12월 30일  
심사통과 : 2003년 2월 10일